

고품격 경제정책 전문매거진

인터넷신문 [www.경영저널.com](http://www.경영저널.com)

통권 제34호 | 2012. 5

# 경영저널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정론



**COVER STORY** / 성백영 상주시장

**Wonderful Sangju** / 대한민국 제1의 자전거도시 자리매김

**포커스 리딩** / 부호(富豪) 아시아지역 최다

**Zoom-in** / 대구 대표 호텔 '그랜드 호텔'

**역사문화탐방** / 낙동강 대표 관광명소 경천대 등 관광자원 풍부

**축제의 고장 Sangju** / '2012년 상주 감고을이야기축제'

**지자체는지금** / "경북관광개발공사 경북도 품으로..."

Photo Essay **문장대**

연두, 녹색물결이 문장대 사방팔방에 넘실거린다.  
속리산 저 멀리 펼쳐진 상주들녘 역시 온통 초록빛깔 일색이다.  
살랑살랑 봄바람 타고 찾아온 5월의 싱그러움이 그 주인공이다.



사진제공/상주시청

경영저널 [www.경영저널.com](http://www.경영저널.com) 통권 제34호

발행인·대표이사 이진구 | 편집인 서기대 | 등록번호 대구라07691 | 창간 2007년 11월 5일 | 편집위원 윤일형, 정성민, 홍순대, 손지강 | 전문기자 장승욱, 민경량, 이포상

편집 이한나 | 사진 김기환 |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 가격 5,000원



# C Contents

- 02 \_ Photo essay / 문장대
- 04 \_ News wide /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강화
- 06 \_ Economic trand / 대구·경북 소상공인 경영난 심각하다
- 08 \_ Cover story / 생백영 상주시장
- 12 \_ Wonderful Sangju / 대한민국 제1의 자전거 도시 자리매김
- 14 \_ 핫이슈 Sangju / "농업 수도(首都) 상주건설에 박차"
- 16 \_ Focus Reading / 부호(富豪) 아시아지역 최다
- 18 \_ 시장경제를 말한다 / 주식시장 재미들은 왜?
- 21 \_ Zoom-in / 대구 대표 호텔 '그랜드 호텔'
- 22 \_ 역사문화탐방 Sangju / 낙동강 대표 관광명소 경천대 등 관광자원 풍부
- 24 \_ Sangju 특산품 / 전국 제일의 곱감 본고장
- 25 \_ 축제의 고장 Sangju / '2012년 상주 감고을이야기축제'
- 26 \_ 지자체는 지금 / "경북관광개발공사 경북도 품으로..."
- 27 \_ Trevel Sketch / 상주박물관
- 28 \_ 멤버십 회원사 줄인 / 엠스클럽 의성 대구·경북 대표 명문 골프클럽 도약
- 30 \_ 금융&투자 / 효율적 시장가설
- 32 \_ 재테크 / 한국형 헤지펀드 펀드시장 새 패러다임
- 34 \_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농어업 / 경북 '역대농' 전국서 가장 많다

##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48,000원  
신청 방법 :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kepiglobal@kepi.or.kr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기재)  
입금 계좌 :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경영저널

## 〈독자 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706-842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독자기고팀(kepiglobal@kepi.or.kr)



##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강화

앞으로 지방공사·공단의 지방공사채 발행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지방채 발행 예정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춰 심사대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공사채 사전 승인 대상을 현행 사채발행예정액 500억원이상에서 300억원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의 공사채 발행 승인에 앞서 사업타당성 등 사채 발행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따져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앞서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공사채를 사용할 경우 6개월 간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조치를 내놓는 등 공사채 발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사·공단 임원 임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범위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용해 구체화함으로써 해당자들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공사채 발행 심사를 강화해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임원 임명의 내부절차 공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착수

국토해양부는 항만 및 인근 해역 46곳을 대상으로 2012년도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는 무역항 7곳, 연안항 22곳, 국가어항 15곳, 연근해 2곳 등 총 46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대상지 선정 자료로 활용된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항만과 연근해 해역에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9년 처음 시작됐다.

초기에는 다량의 쓰레기가 침적된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등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사전조사 없이 실시설계 후 사업을 시행했지만 지난 2004년부터는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6개 해역 및 항만(54만4천794ha)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다량의 침적물이 존재하는 58개 해역



및 항만(41만2천189ha)에 대해선 사업비 156억원을 투입해 2만 181t의 칩적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도 거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향상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칩적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수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GAP 인증 농가 5만가구 육성

정부가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농가를 지난해 3만7천100명에서 올해 5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전체 농가 대비 4.2%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현행 1년으로 돼 있는 GAP 인증 유효기간을 오는 7월2일부터 2년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 부담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GAP 인증 참여 농업인 확대를 위해 예산 30억원을 확보하고 GAP 농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유통활성화사업,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및 인증기관 운영비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활성화 대책을 토대로 오는 2015년까지 GAP 인증농가를 전체 농가의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GAP인증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고 수입농산물이 넘쳐나는 FTA시대를 맞아 농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먹는샘물 국가우수브랜드 부착사업 추진

환경부는 ‘먹는샘물 국가우수브랜드(KOREA Excellent Water)’ 부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먹는샘물 제품을 해외에 알려 브랜드 파워 제고 등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수출용 먹는샘물 제조업체 2곳을 시범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수출용 먹는샘물에 ‘대한민국 환경부 지정 우수 먹는샘물’ 네임과 ‘국가우수브랜드’ 로고를 부착해줄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승인일로부터 1년간 실시되고, 사

업 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후 오는 7월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먹는샘물 수출량은 6만5천459t을 기록, 수입량(1만1천75t)보다 5.9배 많았지만 t당 단가는 280달러에 그쳐 수입단가(t당 781달러)에 비해 2.8배 가량 낮았다.

수출 제품의 부가가치가 낮았다는 뜻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먹는샘물 제품의 브랜드 홍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브랜드 부착 전후 매출액 증대여부 등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할 점을 보완해 향후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수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

조달청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앙아시아, 유럽 대상의 시장개척단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홍보를 위해 1천100여개의 제품을 한 자리에 모은 영문 홈페이지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및 해외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이처럼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지난 3월 진행된 베트남, 인도네시아 조달시장 개척 활동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당시 민·관합동으로 추진한 동남아 조달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총 152건(1천800만달러 상당)의 상담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술력을 갖춘 우수중소 업체들이 보다 많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기청,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체계적인 지원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승욱 전문기자

# 대구·경북 소상공인 경영난 심각하다

설문조사 84.4%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대구·경북의 소상공인 가운데 열의 여덟 가량은 경영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부진 장기화 속에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이 잇따르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된다. <편집자 주>

## 소상공인 84%이상 경영 악화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지역 165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84.4%가 '현재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응답별로는 '매우 어렵다'가 4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소 어렵다' 38.3%, '그저 그렇다' 13.2%, '다소 좋다' 1.2%, '매우 좋다' 1.2% 등의 순이었다.

수익에 대한 질문에선 '흑자상태'란 대답이 고작 4%에 그쳐 소상공인 대부분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상태'와 '현상 유지 상태'는 각각 45%와 5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소상공인의 70.7%가 경쟁관계에 놓여있으며, 32.9%는 과잉 경쟁상태로 경영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소상공인 대부분은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어둡게 내다봤다.

올해 경영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악화될 것이란 응답이 58.2%를 차지한 반면 호전될 것이란 대답은 20.6%에 그쳤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대답도 21.3%에 달했다. 경기불황실성이 기증되고 있는데다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상공인 상당수가 경기전망을 어둡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들이 이처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영향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 영위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은 무려 28%에 달했고, 소상공인의 37.8%는 이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 참여업종의 소상공인 57.7%는 폐업, 철수, 파산과 같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 소상공인 위상도 추락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직업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호응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소상공인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이란 대답이 53.9%로 과반을 넘긴 가운데 '만족하지 못한다'와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는 26.7%와 7.9%에 각각 달했다. 이와 달리 '매우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는 1.2%와 10.3%에 그쳤다.

소상공인의 위상에 대한 질문에서도 '낮은 편이다'와 '매우 낮다'가 42.3%와 12.9%로 과반을 웃돌았다.

또 배우자나 자녀가 사업을 승계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2.7%에 불과해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사업 승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선거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 제한 등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에 대해선 포퓰리즘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59.7%로, '그렇지 않다'란 대답 8.8%를 크게 앞질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의 선거용 대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등 이행실태 점검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소상공인 단결권 확보(12.6%), 소상공인 보호조치(11.3%), 정치적 리더십 변경(5.0%), 대기업의 이행의지(4.4%)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대경본부 관계자는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

이런 분위기는 비단 대구·경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최근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천599명을 대상으로 ‘경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상당수는 자녀들이 자신의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자신의 가업을 승계하기를 희망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1.3%가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가족이 가업 승계를 바란다는 대답은 11.8%로, 10명 중 1명수준에 그쳤다.

또 소상공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선 ‘낮다’는 인식이 61.9%로 가장 많았고,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조사에서는 ‘높다’는 응답이 고작 9.9%에 불과했다.

더욱이 최근 1년간 흑자를 냈다는 응답자는 7.6%에 그쳤고, 51.9%만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0.5%는 아예 적자상태라고 대답했다. 이외에 소상공인시장이 과잉경쟁상태란 대답은 44.7%에 달한 반면 경쟁이 별로 없거나 거의 없다는 응답은 각각 5.2%에 그쳤다.

경영 악화 원인으로서는 소상공인 간 경쟁 못잖게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출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응답자 중 48.5%가 대기업이 자신의 사업영역에 진입해 있으며, 이 중 78.7%는 대기업으로 인해 장사가 더 안 된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폐업·철수·파산이 증가했다는 대답도 77.2%나 됐다.

이포상 전문기자



# 성백영 상주시장

**출생** 1951년 경북 상주  
**학력** 상주 은척초교  
 김천고  
 국제대 법학과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중화민국 국립정치대학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정부 합동민원실 인권치안반장  
 법무연수원 교수 겸 연수과장  
 대구고등검찰청 사무국장  
 한국무역협회 중국법률자문위원  
 경기대 행정대학원 겸임(대우)교수  
 대한주택공사 감사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충주대 석좌교수  
 現 (재)상주장학문화재단 설립·상임고문  
 現 상주상무피닉스 프로축구단 구단주

상주가 대한민국 대표 농업 수도(首都)로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면서 그간 감소세를 보인 시(市)인구도 상승곡선으로 전환할 호기(好機)를 잡고 있다. 상주시는 특히 고부가가치 물산업 육성을 통한 장밋빛 미래도 설계하고 있다. 상주지역 사회 안팎에선 이런 성과물을 안겨다준 주역으로 민선 5기 성백영 상주시장의 숨은 공로가 매우 컸다는 일치된 중론을 내놓고 있다. 상주 출신인 성 시장은 고향발전을 위해 한 톨의 밀알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시장(市長) 취임 이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변함없이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일류도시 상주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26일 상주시청에서 가진 본보와의 대담에서 성 시장은 “시민 대화합 속에 신(新)낙동강시대의 문화관광 중심도시이자 대한민국 농업 수도로 상주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반드시 열어젖힐 것”이라면서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 추진, 고부가가치 물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잘사는 초일류도시 상주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 “ 대한민국 농업 수도(首都) 상주 건설에 매진할 터 ”

## 일문일답

**Q** 취임 후 지난 1년9개월을 회고한다면?

**A** 상주시장 취임이후 1년9개월을 회고한다면, 상주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잖은 성과물을 도출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주상무피닉스 축구단 유치입니다. 상주 경제 인팍에 1조원 이상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고 시민 화합과 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상주상무피닉스 축구단 유치는 지역 사회에 실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기업유치 성과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컨대 웅진그룹의 태양광 주력 계열사인 웅진폴리실리콘(주) 상주공장을 준공하면서 태양광 중추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해 6월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에서 국제슬로시티에 지정된 이후 때 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대표 슬로시티 본고장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자전거동호인, 시민 등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막행사도 열어 자전거 도시 상주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상주보·낙단보 개방과 함께 상주를 '대한민국 농업 수도'로 선포한 것 역시 상주발전을 위한 희망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물의 밑바탕엔 상주시민과 출향인사들의 한결같은 헌신과 성원과 격려 덕분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 대한민국 농업 수도로 선포한 의미에 대해서?

**A** 수도(首都)는 사전적 의미로 한 국가의 중앙 정부가 들어서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핵심도시를 뜻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상주시가 지난해 10월13일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로 선포한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기반 도시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주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농업도시로 도약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만 살펴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상주는 우선 농업부문 총 생산액 1조원시대를 이미 열어젖혔습

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시설오이·양봉·꽃감은 전국 1위, 한우는 2위, 쌀·배·사과·포도도 전국 10위권의 주산지로 평가됩니다.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억대농가도 1천508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다 수출농가만 587가구에 달하고, 연간 4천745t, 금액으로 환산할 때 130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내다팔고 있습니다. 농기수와 경지면적, 농기계 보유대수 등의 항목에서도 전국 최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일종의 기간산업(基幹産業)의 의미를 지닙니다. 글로벌 시장 환경도 이와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등의 여파로 식량자원 부족현상이 기승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은 분명 미래 생명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주시는 그래서 지역의 농가들이 농사만 지어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 최선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 제1의 역점시책이기도 합니다. 수출전문단지 구축을 기반으로 농산물 수출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동시에 쌀, 감, 곤충식품산업을 이용한 연구개발(R&D)기반을 구축하고 권역별 안정생산기반 특화농업지구 조성 등을 통해 농가소득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1세기 미래농업의 중심도시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Q**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증가방안은?

**A**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현상은 비단 상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의 각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떠안고 있는 핵심문제 중 하나입니다.

중앙 정부의 수도권 중심 개발정책과정에서 빚어진 대표적 부작용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고 시장(市長)인 저가 이 문제에 손을 놓아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상주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귀촌·귀농과 관련된 시책을 강화하면서 해결점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에 따라 차별화된 귀농, 귀촌정책을 다양하게 펼쳐



예비 귀농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귀농인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상담에서부터 정착지 및 농지구입, 영농품목, 영농기술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의 완벽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전담반 3개팀을 편성하고 1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가당 최고 2억4천만원까지 저리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가시적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주지역으로 귀농한 가구만 162가구, 총 53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귀농인 가구운데 전국 각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40~50대 중장년층과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 등을 중심으로 귀농 1번지로 각광받고 있는 셈이지요. 최근 들어선 30대 젊은층의 귀농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주로의 귀농인구가 이처럼 많은 것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차별화된 귀농인 지원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주는 대전, 대구와 1시간 지척거리에 있고, 서울, 부산과도 2시간 생활권에 있는 등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상주를 잇는 관문인 나들목만 총 6곳에 달합니다.

### Q 물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선?

A 상주시는 최근들어 신(新)낙동강시대를 견인할 중추도시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생태자원 등 물적 자원은 매우 우수합니다. 상주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상주보와 낙단보 등 보(坝) 2개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주변의 경천대, 도남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문화·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어원의 발원지이자 본원의 시발점인 상주시의 물산업 육성책은 특히 최근들어 대구·경북이 '2015년 제7차 세계 물 포럼'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우선

오는 9월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상주보, 낙단보, 경천섬 등을 중심으로 열리는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자원 기반의 미래 먹거리 성장산업 육성에도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천연암반수 상품화를 통해 국내·외 생수시장에 진출하는 동시에 물자원을 이용한 의류, 식품, 관광상품개발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프라 조성사업 역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국비 등 사업비 1천200억원을 투입해 낙동강 물량리 일원에 4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물산업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산업단지는 우선 10만평 규모로 조성한 뒤 생수, 정화제품, 물생산 및 운반업체, 물관련 광고전문기업 등 국내·외 유수의 물 관련 기업체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해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상주는 머잖은 장래에 우리나라 대표 명품(名品) 물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Q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A 상주전역엔 빼어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천대와 경천섬을 비롯한 상주박물관, 자전거박물관, 상주국제승마장뿐만 아니라 옥동서원, 홍암서원 등 서원 20여곳과 남장사, 북장사 등 고찰 14곳, 동학교당, 보물급 문화재 등 보존 가치가 뛰어난 문화관광자원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탄생한 상주보와 낙단보 또한 최근들어 관광객들의 발길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특히 국가습지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공검지를 세계 최고 권위인 람사르 습지로 지정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표 명품(名品)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등 총 18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낙동강벨트조성사업과 속리산서어동 휴양체험단지 등 9개 사업으로 개발되는 백두대간 에코벨트

조성사업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면 상주시는 명실상부한 신(新)낙동강시대를 이끌 선도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와 병행해 슬로시티 인프라확충사업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철학인 느림의 미학을 시정에 접목해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등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로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상주시는 함창, 공검, 이안을 잇는 '산뽕생명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양잠과 토종농업 기반의 전통 토착산업을 부활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주, 천연염색, 석공예, 도예, 옹기 등의 분야에 장인(匠人)을 육성하고, 전통사찰음식 등 슬로푸드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사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 Q 기업 유치 전략이 있다면?

A 상주시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 거리권에 도달할 수 있는 물류·교통 허브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셈이지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업용지뿐만 아니라 경북대 상주캠퍼스 등 양질의 교육기관 기반의 우수 인재 배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기업 유치책의 하나로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창 제2농공단지를 분양중에 있고, 화서 제2농공단지도 연내 조성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공성면 용안리 일원에 130만평 규모로 단장되는 공성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공검산업단지 85만평을 신규 조성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고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매년 100억원씩 조성해 오는 2021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기업들이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차별화 시책의 일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기업유치 지원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점을 해결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체 멘토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기 운전자금 융자추천 이자지원 등 다양한 세제 지원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자동차 와이퍼 메이커인 (주)캐프 등 (舊)유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주를 전국 제일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Q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상주는 현재 대내·외 여건상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물론 상주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기운의 변화입니다. 시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이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상주는 분명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으뜸상주'로 성장·발전해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친서민 정책을 확대 실시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살기좋은 일류도시 상주를 건설하는데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시장(市長)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 대화합 속에 신(新)낙동강시대의 문화관광 중심도시이자 대한민국 농업 수도로 상주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반드시 열어젖히겠습니다. 상주발전엔 헌신하는 시장(市長),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시민결으로 다가서는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대답=서기대 국장  
정리=장승욱 전문기자



# 대한민국 제1의 자전거 도시 자리매김

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인프라 확충도 주력



상주시가 국내 대표 자전거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 조례를 제정한 동시에 국내 최초로 자전거박물관을 개관하고 자전거 도로 및 보관대 등 관련 인프라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자전거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편집자 주)

##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

상주시의 자전거 역사는 대략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25년엔 상주시차역 개통을 기념한 '조선8도 전국 자전거 대회'도 개최돼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산업화 시기인 1960~70년대들어선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전거 통학이 보편화·일상화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자전거 역사의 축소판으로 볼릴 정도로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90년대를 거쳐 최근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상주시가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시민들의 각별한 자전거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

려 있다. 자전거를 매일 이용하는 주민은 4월 현재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당 자전거 보유 대수도 2대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 및 보유대수 측면에서 단연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것이다.

## 자전거 관련 인프라 조성 박차

상주시 전역엔 자전거 도로망도 촘촘히 갖추고 있다.

4월 현재 자전거도로만 44개노선(181.8km)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악자전거(MTB)코스도 3개 노선을 마련해 선보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3.6km 길이의 남산도로 자전거순환도로를 비롯해 7개노선 162km 길이의 레저스포츠 자전거도로, 총



◇상주자전거박물관



길이 16km짜리 꽃길 자전거도로, 낙동강 투어로드 등도 최근 정비를 마치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건전한 스포츠·레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주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및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현재 21% 수준인 자전거 교통분담율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자전거 안전 및 통행방법 개선, 생활형 자전거도로 확충,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주시는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각급 학교 등 공공시설과 버

스터미널, 기차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와 자전거주차장 121곳을 설치하고 주요 교통거점지역 등 도심 5곳에 여성용, 어린이용, 2인용 자전거 등 무료 대여용 자전거 160여대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엔 자전거주차장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자전거 횡단로 설치, 보도턱 낮추기 등 이용자 편의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애쓰고 있다.

상주시 측은 지난 2001년부터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과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쳐 4월 현재 8천565명이 이수한 동시에 5천545명의 학생들이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 자전거 기반 저탄소 녹색성장 중추도시 부상

상주시의 자전거도시 육성 의지는 남달라 보인다. 다른 지자체에선 결코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주시 남장동에 자전거 박물관을 개관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 2010년 10월 상주시 도남동으로 확장·이전한 자전거박물관에는 보존가치가 뛰어난 초창기 자전거와 이색자전거 100여대를 전시하고 있으며 체험자전거 155대를 확보해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상주자전거박물관’ 이용객은 공휴일 기준으로 일평균 1천명에 달하는 등 자전거도시 상주의 대표적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상주시 측은 전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상주자전거박물관 인근의 경천대와 상주보를 연계한 자전거 관광코스를 이용하는 탐방객들도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상주자전거박물관에서 상주보를 거쳐 낙단보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역시 자전거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상주시는 앞서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자전거 동호인, 시민 등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도 개최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4천 251대의 자전거가 참가한 세계 최대의 자전거 퍼레이드를 비롯한 2천100명이 펼친 이색가장행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상주시 관계자는 “신(新)낙동강시대를 맞아 자전거 기반의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명품(名品) 자전거 도시로 세계인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경량 전문기자





# 고부가가치 물산업 육성에 박차

상주시 2012년 7대 역점 시책 진단·분석

‘대한민국 농업 수도’ 상주시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촌 실현’을 시정 제의 목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물산업 육성, 관광선도도시 조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 친서민 사업 확대 추진 등 상주시의 2012년 시정 운영 방향과 7대 역점 시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문화·관광·레저 인프라 조성 박차

상주시는 올 한해 슬로시티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슬로시티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내 대표 ‘관광유도피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상주시는 지난해 국제슬로시티에 선정되면서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

시에 신(新) 낙동강시대 충추도시로서 고품격 녹색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조기에 일 단락 지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수상레저시설 확충,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및 역사문화생태 체험특화단지조성사업에 팔 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상주시는 특 히 지난해 상주보, 낙단보 개방과 함께 경천대권 개발사업 등을 통해 낙동강 기반의 충추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상주는 전국에서 드물게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일환으로 조 성된 보(伏) 2곳을 확보하고 있다.

## 대한민국 농업 수도 상주 건설 주력

상주시는 아울러 한미FTA 등 자유무역협정시대를 맞아 농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신 기술 보급, 소득작물 개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와 연계해 곤충생태원 유치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과 함께 오디·뽕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주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된 후 이와 관련된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상주국제승마장과 연계해 말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 및 기관 유치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상주시 측은 밝혔다.

###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사업 강화

상주시는 '2015년 세계 물 포럼대회' 대구·경북 유치를 계기로 물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하 암반수 등 천혜의 물 자원을 가공산업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여기에서 낙동강 물주간 행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낙동강 워터 비즈니스단지 유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상하수도사업 정비 등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상주시는 이와 병행해 저탄소 녹색 성장산업의 대명사인 바이크산업 육성에도 간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성장 동력으로 21세기 최대 화두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상주시는 자전거 보급대수, 이용률 등의 측면에서 전국 제일의 자전거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 지역 경제활성화 안간힘

상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육성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해법으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카드도 꺼내들고 있다.

교통 대동맥인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비롯해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를 완전 개통하고 상주-김천간 국도 3호선, 헌신-동부초등간·화개교-북천교간 국도25호선 확·포장 공사와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해 광역교통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책으로는 합창, 화서 등지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 개발 법인설립을 통한 공성 용안지구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단지를 비롯한 공공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유치를 통

한 일자리 창출과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서민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 인구증가시책 적극 추진

상주시는 인구 증가 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시(市) 인구를 13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귀촌, 귀농자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출산, 육아분야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복지 증진 및 친서민시책 역점

친서민정책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 대상의 복지사업 확대를 통해서다. 상주시는 이를위해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어르신,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대상의 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강화하면서 살기좋은 복지도시 상주건설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 문화·체육 및 인재육성책도 확대

문화·스포츠산업 및 인계 육성사업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상주감고을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의 내실을 다지고, 상주 상무피닉스 프로축구단과 유소년 축구클럽 육성을 통해 시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아울러 스포츠도시 상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 인재육성책으로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연초부터 읍·면지역의 초등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한편 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해 경북대 상주캠퍼스 주변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주시는 차질없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예산을 5천734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22%(232억원) 증액된 것이다.

성백영 상주시장은 "살기좋은 상주 건설을 위해 시정발전 자문협의회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친서민시책 확대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상주를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가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승욱 전반기자

# 부호(富豪) 아시아지역 최다

씨티그룹 1억달러 이상 자산보유 억만장자 조사서  
아시아 북미지역 첫 추월

부호(富豪)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최근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 기준으로 정답은 '아시아'다. 부호와 관련된 조사 자료는 국내에서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최근 영국 컨설팅업체 스콜피오파트너십과 공동 발표한 '2012 FuturePriority'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목표로 하는 10년 후 재산증식 목표 규모는 600만달러로 조사됐다.

## 억만장자 아시아지역 가장 많다

아시아지역 억만장자 규모가 북미지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억만장자 무게 중심이 기존 북미, 서유럽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씨티그룹이 최근 발표한 '웰스 리포트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아시아지역에서 1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 수는 1만8천명으로, 북미지역(1만7천명)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서유럽은 1만4천명에 그쳤다.

앞서 지난 2010년 조사에서는 아시아와 북미지역 억만장자 수가 1만6천명으로 같았다. 당시 서유럽은 1만3천명에 머물렀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고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그룹과 함께 이번 조사에 참가한 영국 대표 부동산기업인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의 그레이니 길모어 대표는 2016년 아시아의 전체 억만장자 수를 2만6천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북미지역의 억만장자수는 2만1천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경제가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신흥 부호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억만장자 1만7천1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이 1만4천명을 기록,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했다. 길모어 대표는 아울러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장세를 보

이고 있는 서유럽의 2016년 억만장자 수는 1만5천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씨티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그러나 2050년까지 인도에 재차 추월당할 것으로 씨티그룹 측은 관측했다.

## 우리나라 자산가 10년후 600만달러 목표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향후 10년 후의 자산 증식 목표액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10년 후 자산 목표치를 600만 달러(약 68억 원)로 잡고 있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최근 영국 컨설팅업체 스콜피오파트너십과 공동 발표한 '2012 FuturePriority'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목표로 하는 10년 후 재산증식 규모는 평균 600만달러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10~11월 두 달에 걸쳐 한국 등 아시아 9개국에서 금융자산 10만달러(약 1억1천만원) 이상의 자산가 2천768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는 조사대상 지역인 아시아 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조사대상의 다른 나라 응답자들에 비해 안전 자산 선호현상이 높게 나타났는데, 연금상품(44%), 고금리 정기예금(43%), 부동산(36%)과





같은 투자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다른 아시아 국가 자산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금한국 24%·전체 43%)이나 뮤추얼펀드(한국 7%·전체 26%)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연금상품과 고금리 정기예금, 부동산에 대한 평균치는 이번 조사에서 각각 24%, 42%, 34%에 머물렀다. 조사에 응한 우리나라 자산가 309명 중 재산 증식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응답자는 전체의 19%에 그쳤다. 전체 평균은 65%에 달했다. 우리나라 부유층 대다수가 소득수준은 높으나 다른 나라 부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래 자산 목표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최고 재벌가는 삼성가(家)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벌가 중 최고 부자는 누구일까. 재벌가 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 지분을 토대로 살펴보면 최고 부자는 단연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로 나타났

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기준으로 이근희 회장과 부인 홍라희,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일가의 상장 주가치는 무려 13조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이 회장 일가의 지분가치 또한 수직상승한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주당 126만1천원을 기록하는 등 초고가 행진을 보였다. '주식 부자' 로는 이 회장에 이어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일가의 상장 지분도 9조7천억원을 넘어 10조원 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석호 롯데그룹 회장 일가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일가 역시 3조원대의 주식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도 1조6천억원대 주식자산을 보유하고 처음으로 가족단위 주식자산 순위 1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증권가에선 분석하고 있다.

이포상 전문기자

# 주식시장의 개미들은 왜?



최근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슈퍼개미 (고액의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개인투자자)와 같은 똑똑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소식을 흔히 접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항상 뒤쳐졌다는 경험적 사실에 비춰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의 개미는 실패를 거듭하는 '봉'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개미주식들의 저조한 성적은 올해 코스닥 종목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엔가이드(Fn-Guide)의 상장기업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15개 종목의 평균수익률은 -10.83%(4월3일 기준)로 동일기간동안의 코스닥시장 수익률 -1.56%을 크게 밑돈다. 개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과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이유 중 하나로 개인들은 이른바 잘못된 음성피드백투자전략 (Negative Feedback Strategy: 최근 일정기간동안 주가가 오른 주식을 팔고 내린 주식을 사는 투자전략으로 역(逆)투자전략 (Contrarian Investment Strategy라고도 함)을 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서 문제는 역투자전략의 효용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않은채 그저 고시가격 자체가 싸보인다거나 이전의 가격으로 언젠가는 회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역투자전략을 활용함에 있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기존의 상승장을 이끌어 오던 종목을 배제하고 기업의 기초체력인 펀더

멘털(Fundamental)이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주가부양이 상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투자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투자기업이 어떠한 산업을 향유하고 있는지, 기업의 현재이슈, 액면가, 향후 전망과 같은 기본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활동만이라도 병행이 된다면 어설픈 투자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근거없는 소문과 직관에 휩싸이는 것을 지양하되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의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렌버핏의 'There is no free lunch' 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공짜심리에 익숙한 '물지마' 개인들은 더 늦기 전에 주식시장을 떠나야 할 것이다.

이포상 전문기자







# 노란우산공제가 300만 사장님들과 내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달인 김병만, 류담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가입시 혜택

-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최고 115만원까지 절세가 됩니다.
-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 시에도 안전합니다.
-  **상해 사고시 별도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입 안내

- **가입자격**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 **납입부금** 월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담문의** 콜센터(1666-9988), 홈페이지(www.8899.or.kr)

5月중  
오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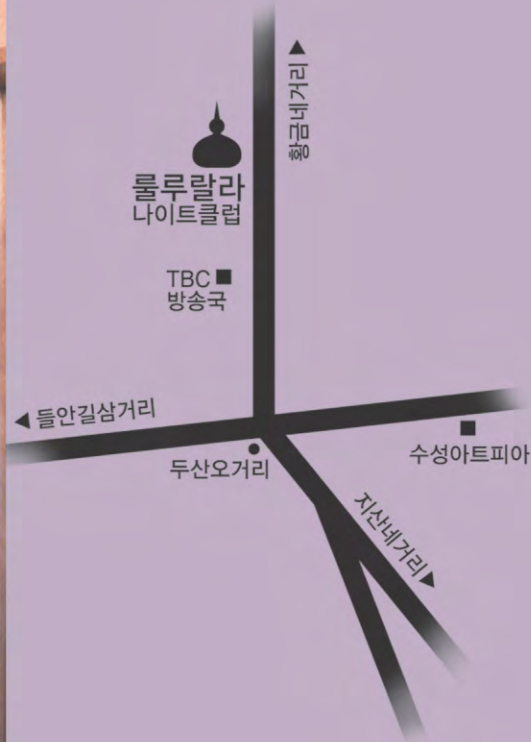
# 룰루랄라

LP와 함께하는  
추억여행

콜라의 전설이 시작된다

감성 충만했던  
그때 그시절,  
음악과 함께하는  
그리운 추억속으로..

룰루랄라  
SOJU CLUB



# 대구 대표 호텔 '그랜드 호텔'

뛰어난 접근성·비즈니스 중심지·  
최신식 시설 3박자 조화



대구 그랜드호텔은 대구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부근에 들어서 있다. 대구지역 호텔 가운데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뜻이다.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춰서 그렇다. 대구의 주요 교통망인 대구국제공항과 동대구역, 동대구고속터미널에서 그랜드호텔까지는 짧게는 10분 거리에서 길게는 20분 정도 소요되는 지척거리에 있다. 편리한 교통망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설 측면에서도 대구 대표 호텔로 손색없어 보인다.

지난 1992년 개관한 대구 그랜드호텔은 애초 특2급호텔로 출발했다가 별관 증축 등을 통해 2007년 특1급호텔로 승격했다. 지난 2005년과 2010년엔 객실과 별관을 각각 리노베이션 오픈하고, 이보다 앞서 2002년엔 객실과 연회장을 증축하는 등 현대식 시설로 새단장하면서 대구를 대표하는 호텔로 인정받고 있다. 대구 그랜드호텔의



사훈은 '친화단결', '창의노력', '친절봉사'로 압축된다. 이 사훈엔 고객들에게 최선의 친절과 봉사로서 다가서는 동시에 직원들간 친화단결을 토대로 조직문화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구 그랜드호텔은 4월 현재 초현대적 시설의 객실 150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신 시설의 연회장 및 예식장을 두루 갖추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이용 만족도가 높다. 기업체 창립기념식을 비롯한 세미나, 만찬,

결혼식 등 각종 연회와 관련된 예약문의가 연중 쇄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메리트 때문이다. 대구그랜드호텔의 자랑거리는 이 보다 많다. 지하 500m 암반에서 끌어올린 뒤 엄격한 정수과정을 거쳐 최상급 수질을 제공하고 있는 사우나시설도 고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신형 컴퓨터, 복사기 등을 갖춘 비즈니스센터 역시 대구로 출장을 온 타 지역 샐러리맨 등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 그랜드호텔 관계자는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호텔을 목표로 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뛰어난 교통망, 비즈니스 중심지, 그리고 최신식 시설이 한데 조화를 이룬 대구지역 대표 호텔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량 전문가



# 낙동강 대표 관광명소 경천대 등 관광자원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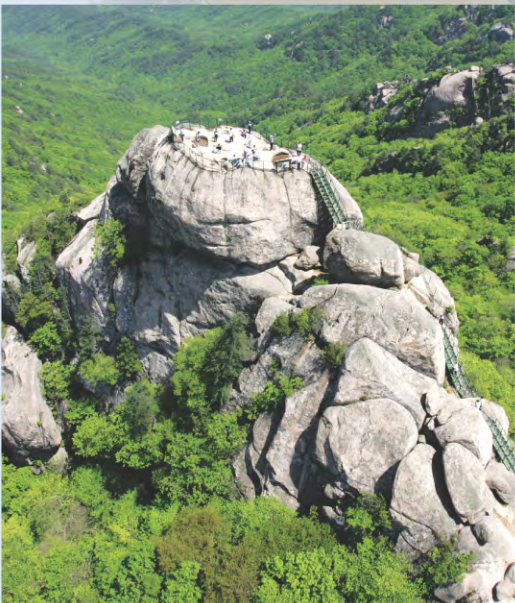
경북지역 내륙중심도시 상주에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는 수려한 경치의 경천대, 문장대와 함께 천년 고찰 남장사, 갑장사, 연수암 등을 꼽을 수 있다.

## 경천대

경천대는 낙동강 1천300리 물길 가운데 그 아름다움이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빼어난 풍광(風光)을 자랑한다.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른 바위 위로 푸른 하늘과 햇살을 담은 송림이 우거져 있고, 맞은편에는 굽이도는 물길과 함께 금빛 모래사장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경천대의 옛 이름은 '하늘이 스스로 만든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의 '자천대'다.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가 되어 심양으로 갈 때 수행했던 인물인 우담 채득기가 고향으로 낙향한 뒤 이곳 경치에 반해 작은 정자를 짓고 머물면서 경천대로 불려졌다고 한다. 경천대 인근에는 상주가 자랑하는 전사별 왕릉도 있다. 이 왕릉은 부족국가 사벌국의 왕릉으로 전해지고 있다. 능 아래에는 사벌국왕릉사적비와 사벌국 왕 신도비가 있고, 화달리 3층석탑(보물 제117호) 등 부근엔 역사문화유적도 엿볼 수 있다.

## 문장대

비로봉(毘盧峰)·관음봉(觀音峰)·천황봉(天皇峰)과 함께 속리산(俗離山)에 딸린 대표적 고봉이다. 경북 상주와 충북 보은 사이에 있는 속리산은 지난 1970년 국립공원에 지정된 우리나라 대표 명산으로 유명하다. 이 산의 최고봉은 천황봉(1천58m)이지만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봉우리는 단연 문장대(해발 1천54m)다. 속리산의 수려한 산세를 한눈에 접할 수 있는 등 빼어난 경치를 만끽할 수 있어서다. 이 고봉은 원래 큰 암석이 하늘 높이 치솟아 흰 구름과 맞닿은 듯한 절경을 이루고 있어 운장대(雲藏臺)로 불렸지만, 조선 제7대 왕인 세조가 이곳에 올라 시를 읊은 후 문장대란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산마루에는 5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널찍한 바위가 있으며, 범주사를 지나 세심정을 거치는 등산코스를 이용하면 넉넉잡아 3시간 정도면 문장대에 오를 수 있다.





## 남장사 등 전통 고찰도 유명

상주시 남장동 502번지에 위치한 남장사는 서기 830년(홍덕왕 5년) 진감국사에 의해 개창된 천년 역사의 전통 고찰로 이름이 높다. 창건 당시 장백사(長楳寺)로 명명됐지만 1186년(고려 명종16년) 각원화상이 남장사로 개칭한 뒤 중창된 것으로 문헌에는 전해지고 있다. 이 사찰엔 철불 좌상(보물 990호)과 목각 후불 탱화(보물 922호) 등 불교 예술 걸작품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 사찰의 산문(山門) 중 첫째 문인 일주문 또한 지방문화재자료 442호로 지정돼 있다. 경내에는 이와 함께 1797년(정조 21년)에 창건된 관음선원이 있는데,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각 후불탱(보물 923호)이 보존돼 있다. 상주를 대표하는 사찰로는 갑장사와 연수암도 빠트릴 수 없다. 상주시 지천동 산5번지에 자리잡은 갑장사는 1373년(공민왕 22년) 나옹화상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문화재 자료 제125호인 삼층 석탑을 경내에 두고 있으며, 주위에 구룡연, 문필봉, 백질바위와 같은 관광자원도 들어서 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연수암도 상주를 대표하는 고찰로 명성이 자자하다.

연수암은 신라 홍덕왕 7년(서기 832년)에 진감국사에 의해 건립한 장백사의 한 암자로 추정된다. 오랜 기간 탐과 쌍사자 석등을 간직한 토굴암자로 보존되어 오다 지난 1940년에 재건됐다. 삼존불과 십일면 관세음보살입상을 봉안하고 있으며 2002년 전통사찰에 지정됐다. 한편 상주에는 보존가치가 뛰어난 국가지정 문화재 및 경북도기념물도 즐비하다. 보물 제1374호로 지정된 용흥사 삼불회괘불탱(龍興寺 三佛會掛佛幀), 석조천인상(石造天人像·보물 제661호), 상오리 7층석탑(보물 제683호), 존애원(存愛院·경북도기념물 제89호)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민경량 전문기자



# 전국 제일의 귤감 본고장

맛, 품질 전국 최고 ... 유통업계 명절 선물로 인기



**상** 주는 전국 제일의 귤감 생산 본고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귤감=상주'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상주귤감은 상주에서 생산된 떫은 감을 이용해 60일 이상 자연건조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상주지역의 깨끗한 공기와 맑은 햇살, 그리고 적정 수준의 온·습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인공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 최고 품질의 웰빙 먹을거리로 조명받고 있다고 상주시 측은 전했다.

상주귤감은 비타민,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 뿐만 아니라 속취해소, 항혈전작용 및 혈액순환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약리작용 또한 탁월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피로 회복 및 감기 예방에 효과가 뛰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도 고혈압 및 심장병 환자가 장기 복용해도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지역 귤감 생산농가는 3천 375가구 규모이며, 연간 생산량은 1만7천837t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것이다. 귤감을 이용한 농가소득은 한접당 6만원 기준으로 1천506억원에 달한다고 상주시 측은 덧붙였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5년 9월 상주 외남면 흥평리, 남원동 및 남장동 등지를 귤감특구로 지정해 농가 소득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상주시 또한 지난해 3월 예산



62억원을 투입해 귤감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아울러 내년 5월 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귤감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귤감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상주귤감은 4월 현재 상주귤감 공동브랜드 및 공동 캐릭터, 상주귤감 2차 가공식품 브랜드로 '천년고수', '꼬까미와호', '조을시구'에 대한 상표등록을 각각 확보하고 있다.

상주귤감 공동 브랜드인 천년고수는 지난 2008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의 영예도 안았다. 상주귤감은 특히 지난 2008년 설날 대통령 선물로 제공된 것은 물론 유통업계의 설, 추석 명절 선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등 뛰어난 맛뿐만 아니라 최고 품질의 귤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상주 귤감은) 조선 예종때 임금께 진상되는 등 예부터 전국 최고 품질의 귤감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다른 과일에 비해 식이섬유 함유량이 10배 이상 많아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장승욱 전문기자



# ‘2012년 상주 감고을이야기축제’

경북도 육성지원축제에 선정... 경상감사 도입순력행차 등 볼거리 다양

꽃감의 고향으로 유명한 상주에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있다.

경북도 육성지원축제에 뽑힌 ‘상주 감고을이야기축제’가 바로 그것이다. <편집자 주>

2012년 상주 감고을 이야기축제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에 펼쳐진다. ‘감익는 고을 상주의 가을이야기’를 테마로 오는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북천시민공원과 낙동강일원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상주시가 주최하고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감고을이야기 축제에서는 상주의 청정이미지를 알리고 신(新)낙동강시대를 맞아 농업 중심의 우리나라 대표 도시로서의 비전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된다. 상주지역 대표 농산물을 방문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방문객들에게 결실의 계절 가을의 정취를 가득 제공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많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는 게 상주시의 목표다. 이번 축제는 그래서 시민과 출향인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화합축제 △축제의 품격을 높이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화축제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문화축제 △지역 이미지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홍보축제 등 크게 네 가지 컨셉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올해 축제는 무엇보다 질적 완성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감고을 이야기를 테마로 정겨운 고향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에서 그렇다.

축제첫날인 10월12일에는 개막식과 취타대, 경상감사 도입순력행차 등 거리퍼레이드와 도립국악단 공연 등이 펼쳐진다.

둘째날인 13일에는 감작기대회, 송어잡기, 유등공모전 등이 관람객을 맞고 마지막날인 14일에는 경북도 주관의 낙동강가요제, 열두띠 꼭두탈놀이 공연 등이 무대에 오른다.

상시행사로는 사진공모전, 한우축제와 함께 옹기·도자기·다도·떡메치기를 체험할 수 있는 ‘창작의 숲 코너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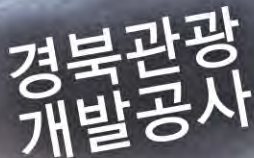
부대행사도 알차게 준비되고 있다. 10월13~14일 이틀간 낙동강 도남서원일원에서는 세계유교문화재단 주관으로 낙강시제가 열리고, 전야제 행사로 10월11일에는 문화회관에서 명주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낙동강 비상콘서트, 구연동화대회 등도 선보인다. 상주시 관계자는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해 행사기간 동안 종합안내소를 비롯해 의료봉사반, 수유실, 미아보호소 등을 설치함으로써 운영의 미(美)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면서 “성공적 축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엔 상주시축제위원회 주최로 축제시기와 추진계획을 확정짓는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포상 전문기자



# “경북관광개발공사 경북도 품으로...”

## 경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큰 힘 보탬 듯



경북관광개발공사



경북도

경북도가 한국관광공사와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계약을 맺었다. 중앙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기관으로 선정된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이로써 지난 1년여의 인수작업 끝에 주인이 한국관광공사에서 경북도로 넘어간 것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최근 도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관광공사와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5년 세계은행(IBRD)의 차관을 재원으로 설립된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 명소인 경주보문관광단지, 안동 유교관광단지 등을 개발해온 공기업이다.

이와 관련, 지역 사회 안팎에서는 사·도민들의 여가공간 창출 및 관광산업의 종합적 업무체계 구축 등 경북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한 적절한 선택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국관광공사의 기업가치평가 결과,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순자산가치는 3천352원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지방세원의 자주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측으로부터 양해를 얻어 법률해석 차이로 발생한 241억원의 법원조정 신청분과 기부채납 1천341억원을 제외한 1천770억원으로 인수금을 최종 확정지었다.

이번 매매계약은 10년간 이뤄지고, 10년간 분납 금리에 대해선 연 4.53%로 합의했다고 양측은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10년 간 금리를 포함해 매년 200여억원을 인수대금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지급해야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갑포·안동관광단지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부채 1천280억원도 부담해야한다.

경북도는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의 집중개발, 거점개발 등 하드웨어적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네트워크화 및 지방분권형 개발 등 차별화된 관광산업개발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생산유발 효과는 각각 1조5천억원, 5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유발효과도 10만2천명에 달할 것으로 경북도 측은 전망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에 인수한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선 기능을 일부 조정한 후 오는 6~7월께 설립 예정인 경북관광공사에 흡수·통합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단지 3곳의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관광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성공적인 흑자 지방공기업 모델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한국관광공사와의 협력을 토대로 해외 진출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경량 전문기자

# Travel Sketch

추억이 머무르는 곳



## 상주박물관

지난 2007년 11월 개관한 상주박물관. 조상들의 슬기와 열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전시하고 있는 상주박물관에는 각종 유물뿐만 아니라 정자 기반의 생태연못, 전통 의례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료출처 : 상주시

# ‘엠스클럽 의성’ 대구·경북 대표 명문 골프클럽 도약

고품격 차별화 마케팅 강화 ... 27홀 수려한 코스도 인기비결

관광레저 전문기업 라미드그룹(www.ramid.co.kr)이 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클럽 ‘엠스클럽 의성’을 오픈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에 위치한 엠스클럽 의성은 오픈과 동시에 대구·경북지역 상류사회를 대표하는 소셜 골프클럽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편집자 주〉

## 대구·경북 대표 명문 골프클럽 자리매김

‘엠스클럽 의성’은 자타가 인정하는 대구·경북 대표 명문(名門) 골프클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기의 비결은 다른 골프장에서는 좀체 찾을 수 없는 차별화 마케팅에 있다. 세계적 골프매니지먼트사인 ‘트론’의 선진화된 관리·운영시스템을 도입해 이용객들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지역 대표 명문 골프클럽으로 도약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트론골프’는 세계 26개국에서 프리미엄급 유명 골프장과 골프리조트 다수를 운영 중에 있는 세계적 골프매니지먼트그룹으로 이름이 높다.

매년 PGA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등 골프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글로벌 대표 골프매니지먼트사로도 인지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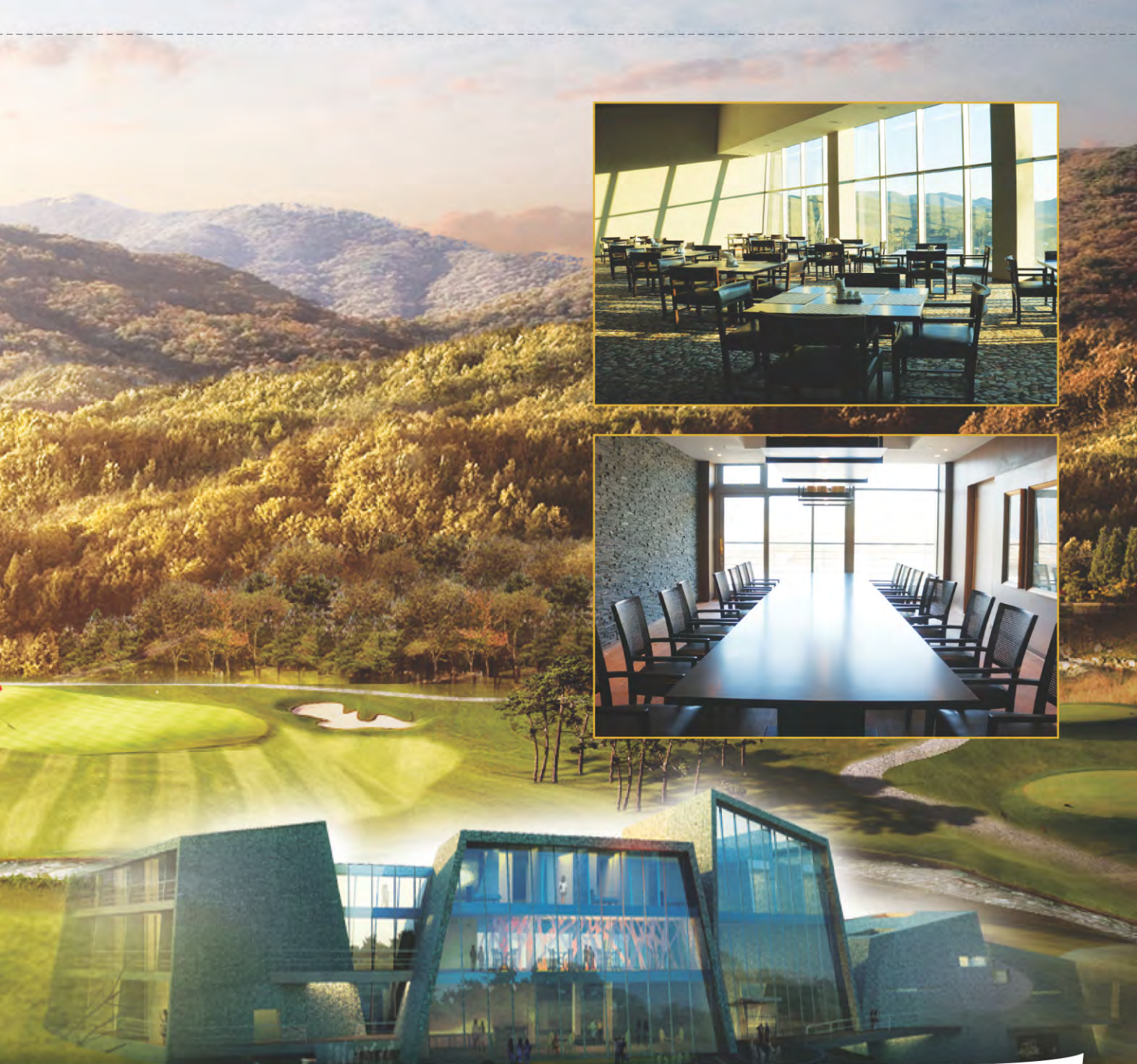
## 대자연과 조화 이룬 27홀 코스 ‘눈길’

‘엠스클럽 의성’의 자랑거리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다. 우선 수려한 코스와 함께 웅장한 클럽하우스를 갖춘 점에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엠스클럽 의성’은 총 185만1천239.67㎡(56만평) 부지에 27홀의 드넓은 코스로 조성돼 대자연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고안돼 지역 골프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다.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것도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엠스클럽 의성’은 실제로 서대구IC에서 30분 지척거리에 위치해 대구지역 골프 마니아들도 즐겨 찾고 있다.

여기에도 의성지역 대표 특산물인 미늘을 모티브로 클럽하우스



스 외관을 디자인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뿐 아니라 수익만을 추구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회원우대 골프클럽을 지향하고 있는 등 소수의 회원만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인기의 비결로 꼽힌다.

### 국내 대표 멤버십 골프클럽 목표

‘엠스클럽 의성’은 회원 399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국내 대표 멤버십 골프클럽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소 회원만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차원에서 상시 부킹을 제공하고 회원과 함께 찾은 이용객들에게도 차별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회원들의 명예와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구·경북지역 명사(名士)를 위한 체계적인 커뮤니티를 제공함으로써 운영의 미(美)를 극대화하고 있는 셈이다

라미드그룹 문병욱 대표는 “(엠스클럽 의성) 대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장 컨셉에 초점을 두고 코스 설계와 인테리어에 각별한 정성을 쏟은 라미드그룹의 대표적 골프클럽”이라며 “골프 마니아들 사이에서 대구·경북지역 상류층 명사들을 대변하는 명문 골프클럽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라미드그룹은 지난 1991년 빅토리아호텔 개관을 시작으로 호텔 및 골프분야의 사업확장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월 현재 라마다서울, 라마다송도, 미란다이천 등 호텔 4곳과 양평TPC, 남양주 C.C 등 골프장 3곳 뿐만 아니라 동백 스포랜드 등 8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국내 대표 관광레저 전문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포상 전문기자

# 효율적 시장가설

**효** 유효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은 약형, 준강형 그리고 강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주가에 어떠한 정보가 반영되었는가 하는 범위의 문제일 뿐, 효율적 시장가설은 정보가 주가에 정확히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는 가설이다.

효율적 시장가설에 따르면 시장가격은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되었으므로 현 주가는 주식의 내재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잣대가 된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과소평가 되거나 과대평가 되는 경우가 없으며 투자자의 일시적인 높은 성과는 운이며, 지속적인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투자자도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다.

효율적인 시장은 아무에게도 시장평균보다 높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는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올리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효율적인 시장가설에 따르면 현재 주가를 변동시킬 정보는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며, 미래 주가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정보에 의해 변동하게 되므로 주가의 움직임은 랜덤워크(random walk) 즉 예측할 수 없다.

효율적 시장가설이 성립한다면, 과거의 주가와 관련된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주가변화를 이용하여 미래 주가를 예측하고자 하는 기술적 분석, 그리고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 역시 유용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장의 경우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서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진행될수록 시장은 더욱 효율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침팬지 vs 전문투자자

효율적 시장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다. 침팬지는 다트를 던져 포트폴리오의 구성종목을 결정하였으며, 전문투자자는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성적을 비교한 결과, 침팬지가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마리의 침팬지와 4명의 펀드매니저가 투자게임을 벌인 적이 있다.

침팬지는 무작위로 종목을 찍었고 전문가인 펀드매니저는 고심해서 종목을 선정했다. 결과는 펀드매니저들을 물리친 침팬지들이 선두경쟁을 벌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 시장가설을 지지하는 이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차라리 시장평균 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한다.

## 효율적 시장가설에 대한 공격

효율적 시장가설에 반하여 시장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주가는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에 따라 움직인다는 주장도 있다. P/E가 수백배에 달하는 기업, 단순히 회사명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주가가 급등, 새로운 정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격한 변동 그리고 많은 거래량은 효율적 시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 중 하나이다.

1977~1990년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투자가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의 놀라운 투자성적을 보면 효율적 시장가설의 주장은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든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은 정보 획득과 미래 주가에 대한 예측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효율적 시장과는 달리 시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단 하루 새 주가가 22%나 폭락한 블랙먼데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효율적 시장가설 지지자)들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롱텀캐피털 매니저먼트의 파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효율적 시장이론이 현실과 크게 괴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효율적 시장가설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효율적 시장가설을 대안할 만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상반되는 이론들을 절충하고 종합해 더 나은 모형을 만들어내려고 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창승욱 전문기자

대구·경북의 새 랜드마크



# 강정 고령보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강정고령보가  
지난 2011년 10월 22일 개방되었습니다.

강정고령보는 전국의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길이 뿐만 아니라  
저수량 측면에서 단연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고령군은 강정고령보 개방에 맞춰 낙동강 수변공간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등 관광객 유치에 통한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경영저널 연중 캠페인

“물 사랑 지역 사랑”

# 한국형 헤지펀드 펀드시장 새 패러다임

## 자본시장법 시행 후 투자자 관심 고조

지난해 연말 출시된 한국형 헤지펀드가 펀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최근 본격 시행된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운영사들 역시 헤지펀드 운영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국내 대표 펀드 평가사인 제로인이 소개하는 국내·외 헤지펀드시장 규모 및 운용사별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한국형 헤지펀드 정착단계

헤지펀드는 주로 파생상품, 통화, 원자재 등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고위험 자산군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기금을 의미한다.

지난달 26일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헤지펀드시장은 운용여건과 운용사의 기반이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구사전략은 롱숏전략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롱숏'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는 동시에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short Selling)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전략 중 하나다.

헤지펀드의 목표수익률은 7~12% 수준이며, 상관관계가 낮은 전략에 분산투자하고 있다. 일방향성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글로벌 헤지펀드 조사기관인 Eurekahedge에 따르면 전 세계 헤지펀드 순자산 규모는 지난 2011년 1월말 기준으로 1조7천억 달러(1천900조원)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헤지펀드시장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주식 롱숏(29.4%), 멀티전략(16.5%), CTA/Managed Futures(12.1%), 이벤트드리븐(11.2%) 등의 순으로 전략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담은꼴 펀드 많다

재미난 점은 헤지펀드 전략과 유사한 국내 펀드상품이 적지 않은데 있다. 현선물차익거래, 공모주투자, 롱숏 등을 활용한 절대수의 추구형이나 차입을 통한 공매도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레버리지펀드가 많아서다.

이들 펀드는 헤지펀드 운용에 사용되는 일부 전략을 가미해 절대 수익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키움자산운용은 절대수익형 펀드를 통해 롱숏전략뿐만 아니라 해외 공모주와 블록딜 투자 등 헤지펀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트러스트자산운용 역시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통해 2년간 역외 헤지펀드를 운용(700억원 수준)하고 있으며,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롱숏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최근들어선 역외 헤지펀드와 관련된 선물인텍스에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헤지전략펀드 또한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글로벌헤지전략펀드는 5~10개의 역외 헤지펀드와 상품선물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고 있으며, CTA(Commodity Trading Advisors)전략을 포함한 멀티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 시장 상황 관망 지속

다만 국내에서는 헤지펀드 도입 이후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운용사 대부분이 펀드출시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초기운용자금을 살펴보면 순수 투자자금보다는 운용사의 고유자금과 계열사자금, 프라이브로커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12개 운용사에서 펀드 17개를 출시한 가운데 운용규모는 대략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신한BNPP파리바자산운용만 설정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500억원을 밑돌고 있다.

이들 펀드의 대부분은 롱숏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알파수의 전략을 가미하는 상품도 더러 있다.

특히 미래에셋맵스운용, 신한BNPP운용, 한국운용, 한화운용, KB운용 등은 해외상품에도 분산투자하고 있으며, 해외법인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거나 해외출신 매니저를 확보한 운용사도 상당수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중 퀀트액티브 부문의 오랜 경험을 가진 미래에셋맵스운용의 '스마트Q오퍼튜니티(주식)' 펀드는 퀀트기법을 활용한 국내 및 아시아 주식을 대상으로 롱숏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래에셋운용의 '이지스롱숏' 펀드 또한 국내 및 아시아 주식에 대한 펀더멘털 롱숏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양운용, 삼성운용의 경우 롱숏전략뿐만 아니라 이벤트드리븐 전략을 가미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운용은 채권차익거래, 실권주, 블록딜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미래에셋맵스운용의 '스마트Q토탈리턴(채권)' 펀드는 채권금리 차이에 따른 차이거래를 통해 연 7%대 목표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

제로인 관계자는 "국내 운영사들의 보수 규모는 글로벌 평균인 운영보수 2%, 성과보수 20%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주로 절대수익 개념의 보수적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승욱 전문기자



# 경북 '억대농' 전국서 가장 많다

## 농식품부, 부농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서 소득 1억원 이상의 역대 농가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어디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경북이다. 경북지역 역대농가(연매출 2억원 이상의 영농법인 포함)는 국내 전체의 45%인 7천4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편집자 주>**

경북이 연 소득 1억원이상의 부농(富農)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농업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소득 1억원이상의 부농은 전국에서 1만5천95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과 비교해 1천965명(14%)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2억원 이상인 영농법인도 618곳에서 763곳으로 증가했다. 역대 농업인과 영농법인(영업이익 2억원 이상)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7천499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남 2천753명(17%), 전북 1천568명(9%), 충남 1천264명(8%), 경남 1천246명(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전남(1천646명)과 전북(481명), 경북(213명), 경남(196명) 등은 역대농이 늘어난 반면 충남(-309명), 경기(-203명), 인천(-25명) 등은 줄어들었다. 작목별로는 축산(7천844명

·46%), 과수(2천817명·17%), 채소(2천087명·12%), 버(1천663명·10%), 특작(1천145명·7%)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09년 대비 증가수는 축산이 661명(9%)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폭은 버가 41%(483명)를 차지해 가장 컸다.

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49%인 8천220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이상(3천896명·23%), 40대(3천785명·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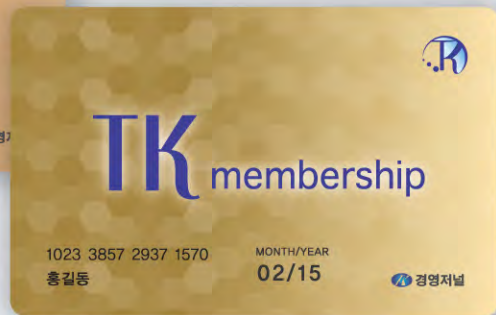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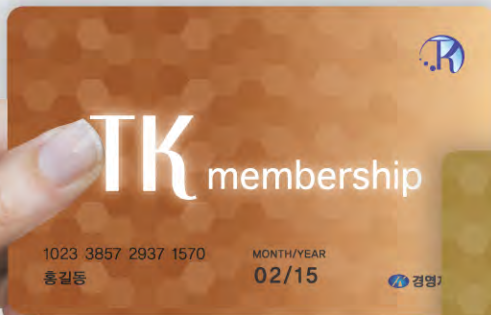
소득별로는 1억~1억5천만원미만이 9천885명(59%)으로 과반을 넘겼고, 1억5천만~2억원 2천949명(18%), 2억~3억원 2천128명(13%), 3억원이상 1천760명(1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10억원 이상의 부농도 164명에 달했다고 농식품부 측은 전했다. 역대 부농이 이처럼 늘어난 원인으로는 영농의 규모화 및 친환경농법 도입, 가공산업 육성, 지자체의 역대농 육성책 강화사업 등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농식품부 측은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농업 경영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오는 2015년까지 연매출 1억원 이상의 경영체 10만곳 육성을 목표로 교육·건설·시설현대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경량 전문기자

경영저널이 **TK**  
membership card  
회원업체를  
모집합니다.



**프리미엄  
광고·홍보 혜택**

- ✓ 경영저널은 TK멤버십카드 제휴가맹업체에 대해 온·오프라인(지면, 홈페이지)을 통한 쌍방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경영저널은 제휴가맹업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맞춤형 광고 게재 등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경영저널은 제휴가맹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제휴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새로운 50년을 꿈꾸다! 문화강국의 힘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백범 김구 선생, 문화강국론 中에서

개교 50주년의 계명문화대학은  
 21세기 창조적 문화인재를 위한  
 '뉴스타트 50년' 을 시작합니다!



계명문화대학 개교50주년 기념식

일시 2012년 5월 15일(화) 11:00 / 장소\_ 계명문화대학 수련관